



現 고2 정시 확대... 주요大 29% 선발

기사입력

최종수정

[동아일보]

고려 17%-연세 33%-成大 30% 등 교육부 확대 요청에 일제히 늘려

“강남 재학생-재수생 유리해질 것”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대입 정시 확대 현황

대학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정시선발 인원(명)	정시선발 비율(%)	정시선발 인원(명)	정시선발 비율(%)
경희대	1390	29.3	1459	30.4
고려대	600	15.8	658	17.3
동국대	856	28.6	869	29.0
서강대	320	20.2	473	30.1
성균관대	705	19.8	1077	30.4
연세대	1011	29.5	1136	33.1
이화여대	694	22.9	783	25.8
중앙대	1145	26.4	1164	27.0
한국외대	1185	34.8	1224	36.2
한양대	852	30.3	868	30.9

본교 정원 내 선발 기준(학교명은 가나다순).

자료: 대입 정보 포털 및 각 대학 종합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 비중이 3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9일 2020학년도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4년제 사립대의 정시 모집 인원을 확인한 결과 10개 대학 모두 2019학년도보다 정시 모집 인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일부 대학

에 전화로 정시 확대를 요청한 지 약 열흘 만에 서울 주요 대학들이 일제히 정시 확대를 방향을 튼 셈이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이날 정시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58명(9.7%) 늘어나는 202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연세대는 전년 대비 125명 늘어난 1136명(정시비율은 33.1%)을 정시에서 뽑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가장 많이 정시 인원을 늘렸다. 2019학년도 705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무려 372명을 늘려 전년 대비 52.7% 증가했다. 2020학년도에 정시 선발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한국외국어대(36.2%), 가장 낮은 학교는 고려대(17.3%)였다.

현재 고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0학년도에 서울 주요 10개 대학 평균 정시 비율은 29%가 된다. 정시 비율이 25.8%인 2019학년도 대입보다 953명 늘어난다. 현재 고2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방향을 바꾸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서울 A대학 입학처장은 “고교 교실을 정상화하겠다면서 10년간 수시를 확대하라던 교육부가 정시 확대를 틀었다”며 “사회적 합의도, 교육철학도 담기지 않은 이번 방침으로 입시 현장만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시가 확대되면 수능점수가 높은 강남지역 재학생들과 수시전형 지원이 제한적이라 수능에 사활을 거는 재학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 동아일보 단독 / 동아일보 공식 페이스북
- ▶ 핫한 경제 이슈와 재테크 방법 총집결(클릭!)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0&aid=0003139549>
